

# 민주 '2021 전대 돈 봉투 의혹' 자체 진상규명 나선다

### “당내 기구 통해 조사”... ‘사법리스크 전방위 확산’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급주 내로 조사단을 꾸려 이번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를 마친 뒤 다음 주쯤 당내 기구를 통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대어(對輿) 비판은 이어가되, 자체 조사를 통해 ‘부패 정당’으로 낙인찍는 여론발 프레임 공세를 최대한 차단하

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결심한 데는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당내 인사를 녹취가 그대로 공개되면서 여론전에서도 수세에 몰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및 각종 언론 보도를 이용해 이번 의혹에 대해 연일 ‘이정근 게이트’ ‘좌파 게이트’라며 대형 부패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당이 무턱대고 방어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자체

적으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가 어떻게 ‘돈 대표’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자신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만 터지면 ‘꼬리 자르기’부터 하는 것이 민주당의 ‘관습 헌법’이 됐다.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유동규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면서 “민주당 당원·당규의 위기대응 매뉴얼

제1조는 ‘일단 모르쇠로 일관한다. 다음 개인 일탈로 몰아간다’ 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의혹이 당직 개편을 통해 겨우 가라앉은 내부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는 줄곧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밀월 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지원한다며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논란은 이 대표가 대선 패배 후 송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거듭

불거진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비주류였던 송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상당수의 친명계가 도운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수사 상황을 봐야겠지만 특정 계파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인 조용천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며 프랑스에 머무는 송 전 대표가 가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당원,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광주 소상공인 활성화와 내년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 민주당 광주시당 “강한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위원회 출범...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적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강수훈)는 지난 14일 광주 서구 양동 KDB생명빌딩(구 금호생명빌딩)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활성화와 2024년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과 이동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경만 국회의원, 강수훈 위원장,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진과 회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수훈 시당 소상공인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위상을 높이고,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면서 “다가오는 2024년 총선 승리에 소상공인위원회가 선두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병훈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면서 “시장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 지자체, 시당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당 소상공인위원회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민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시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광주시의회(의장 정무장)는 최근 전반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제9대 전반기 의정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이해를 통해 모니터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니터 단원 간의 관계증진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이진 광주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지방의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 집행부 견제 및 우수조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정모니터는 40명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의정모니터링, 정책제안, 시민불편사항 등 120여건의 의정모니터 의견을 광주시의회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설화’ 김재원, 비공개 광주·제주 방문

### 5·18 민주묘지, 4·3 평화공원 찾아 참배... “실언 죄송”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4·3은 격낮은 기념일 등 논란성 발언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광주와 제주를 잇달아 찾아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비공개로 광주 서구 운정동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방문록에는 “광주시민의 아픔과 민주 영령님들의 희생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깊이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썼다. 참배를 마친 김 최고위원은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 등 관련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관계자와 만나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광주 서구 5·18 자유공원에 조성된 (상무대) 영창 체험관을 둘러본 뒤 5월 어머니집을 사과 방문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는 각 단체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실언을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5월 정신을 마음에 품고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일각에서는 “징계를 앞두고 정치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고까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제주시 봉개동의 4·3평화공원도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3·8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임명한 뒤 첫 주말이던 지난달 12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한다”고 말했다가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일자 공개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잇따라 발의

### ‘사망사고’ 운전자·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자 이름·얼굴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 음주운전 사고로 배수아(9)양이 숨진 일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도 함께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씨는 “승이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법외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내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